

7월 5일(월) / 민 28-30

▶ **내용요약** : 민수기 28장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안식일, 그리고 유월절과 칠칠절에 드리고 제물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29장에는 일곱째 달 초하루와 속죄일, 장막절에 드릴 제물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중요성과 그 거룩함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교훈하셨다. 30장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에 대한 문제가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결혼 전에는 그의 아버지가, 결혼 후에는 남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원이 무효가 될 수 있었다.

▶ **질문** : 아래 빈 칸을 채우시오. (30장)
“사람이 여호와께 ()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 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 **생각하기** :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삼가도록 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며 섬겨야 하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삶의 태도에서 나타난다.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은혜를 구하자.

7월 8일(목) / 신 4-6

▶ **내용요약** : 신명기 4장에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순종해야 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하셨다. 한편 5장에서 모세는 호렙 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이어서 6장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도록 강조하면서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도 강하게 경고했다.

▶ **질문** : 아래 빈 칸을 채우시오. (6장)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 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 **생각하기** : 사람의 질투는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무너뜨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로 하여금 유일하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준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한다. 하나님의 질투는 죄가 아니라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7월 11일(일) / 신 13-15

▶ **내용요약** : 신명기 13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이들을 경계할 것을 강하게 명령하고 있다. 거짓 선지자와 불량배 뿐 아니라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한다면 그들을 심판하여 죄의 뿌리를 제거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14장에는 애도하는 방법,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 그리고 십일조의 규례 등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규례들은 모두 가나안 땅의 죄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7월 6일(화) / 민 31-33

▶ **내용요약** : 민수기 31장에는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이에 이스라엘은 각 지파에서 천 명씩 무장하여 미디안과 싸워 승리하였다. 32장에서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와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요단 동쪽의 땅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모세는 그들이 요단 서쪽의 가나안 땅 정복에 동참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오해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요단 서쪽 땅을 모두 점령하기까지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하였고, 이에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의 땅을 받게 되었다. 한편 33장에는 애굽에서부터 모압까지의 여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 **질문** :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은? (32장)
▶ **생각하기** : 각 개인의 생각과 입장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 역시 중요함을 기억해야 한다. 르우벤과 갓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했고, 모세는 그들의 말을 신뢰했다. 그리고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다.

7월 9일(금) / 신 7-9

▶ **내용요약** : 신명기 7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므로써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했다. 한편 8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확인시키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또 다시 강조했다. 그리고 9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함을 교훈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땅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 **질문** :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주신 것은? (8장)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 땅으로 직접 인도해 들이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의 하루를 누리자.

지키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어서 15장에는 빛을 면제해주는 안식년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매 칠 년 끝에는 빛을 면제하도록 명령하셨다. 또한 여섯 해 동안 종노릇했던 동족에게도 자유를 주도록 지시하셨다. 또한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며,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셨다. 이처럼 십일조와 안식년 등의 규례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었다.

7월 7일(수) / 민 34-36

▶ **내용요약** : 민수기 34장에는 가나안 땅의 경계와 각 지파의 기업을 분할하는 책임자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시고 또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을 도와 그것을 관리할 사람들까지 직접 임명하셨다. 35장에는 레위 사람들의 성읍과 도피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도피성은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곳이었다. 36장에서는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브핫의 기업을 딸들에게 주도록 허락한 것과 관련하여 길르앗 자손의 종족들의 수령들이 모세를 찾아왔다. 그들은 슬로브핫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할 경우, 자신들의 기업이 삭감될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슬로브핫의 딸들이 같은 지파의 종족과 결혼하도록 하셨으며, 이를 이스라엘의 규례로 삼게 하셨다.

▶ **질문** :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성은? (35장)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판단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도 하시다. 하나님의 계명이 절대적이면서도 경직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이 때문이다. 죄인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보자.

7월 10일(토) / 신 10-12

▶ **내용요약** : 신명기 10장에서 모세는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아야 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궤에 보관되어 있음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임을 교훈했다.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큰 일 즉, 애굽의 바로 왕에게 행하신 이적과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예배의 처소로 나아가야 함을 명령했다. 이는 가나안 지역에 퍼져있는 우상숭배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그들을 하나의 신앙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다.

▶ **질문** : 아래 빈 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10장)
“너희는 ()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 되었음이니라”
▶ **생각하기** :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온라인 예배도 분명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에나 총만하게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예배드리는 신앙공동체를 기뻐하신다.

▶ **질문** : 아래 빈 칸을 채우시오.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이라”
▶ **생각하기** :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돈이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귀하게 여긴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히려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 돈 자체는 우리의 신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돌보시는 분이 오직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